

투데이 칼럼

스쿨존 30km 탄력 운용, 진즉 이렇게 해야지

정 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분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과제다.



신영규 전북수질과비평적기회의 회장

는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까지 이토록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법은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까지 규제를 고집하니, 제도의 취지인 안전 확보보다 과태료 징수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이른바 스쿨존 트라우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학교 앞 노선을 기피하고 멀리 우회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진다. 과거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적 있는 운전자라면 그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날에 학교 앞을 지나다 차량이 정체되면 초조함은 극에 달한다. 실령 우회하지 않고 스쿨존을 통과하더라도, 운전자 느끼는 서행의 답답함은 도로 위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된다.

정상 흐름대로 달리던 차량이 스쿨존 진입과 동시에 급격히 속도를 줄이면, 뒤따르던 차량이 대처하지 못해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러한 급감속 차량들이 꼬리를 붙여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지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도리어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와 물리적

위험을 강요하는 셈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2011년 도입된 스쿨존 제도는 2020년 민식이법 제정으로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고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통행량이 없는 시간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해 차량 흐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어린이가 통행하지 않는 심야나 공휴일에는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탄력 운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불필요한 단속을 덜어줄 이번 조치는 운전자 입장에서 대환영할 일이다.

다만 '진즉 이렇게 바뀌어야지 왜 이리 늦었는가' 하는 강한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들쭉날쭉한 시간 기준으로 인해 운전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한 시간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 경각심은 유지하며 비효율적인 규제는 과감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선안이 국민 불만을 해소하고 진정한 교통안전을 이루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파킨슨병 초기 신호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은 노령 인구가 늘면서 환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질환이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20년 12만 명에서 2024년 14만 명으로 14% 증가했다. 현재까지 완치가 가능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아, 가급적 일찍 발견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 잘 알려진 손떨림이나 구부정한 자세 등은 노화 때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먼저 파킨슨병 환자 중 70% 이상에서 나타나는 떨림 증상은 주로 힘을 빼고 있을 때 팔, 다리, 턱 등의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파킨슨병을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춰주는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증상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치료는 가능하다. 파킨슨병은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삶의 질 유지와 진행 역제가 핵심이다.

약물치료나 수술 후 '내 인생이 돌아왔다'고 표현할 정도로 큰 개선을 경험하는 환자도 많다. 약물 치료에선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대신할 수 있게 레보도파, 도파민 효현제, 모노아민산화효소억제제, 아민타딘 등 항파킨슨 제제를 사용한다.

약물의 용량과 용법을 철저히 지켜 복용할 경우 효과가 좋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 수영, 자전거, 요가, 에어로빅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몸을 자극하는 것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갈아타는 실손 가입자

중증 질환은 두렵게 보장하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됐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 가입자들은 내후년부터 5세대 실손으로 사실상 '강제 전환'된다.

한 상품에 가입해도 15년 후엔 최신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해당 시기 가입자들은 5세대 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 반면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단기가 없어 5세대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실손 가입자 중 '재가입' 약관이 없는 가입자 비중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실손

으로 갈아탈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깎아주는 '계약전환 할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월 보험료로 약 17만8,000원을 내는 60대 여성이 선택형 할인 특약 가입을 통해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제외 △비급여 MRI·MRA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모두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약 10만7,000원으로 낮아진다.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탄 뒤 3년간 '계약전환 할인'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2만3,000원대로 줄어든다. 할인 기간이 끝나도 보험료는 4만2,000원대다.

연간 보험료 납입액보다 보험금 수령액이 적고, 의료기관 이용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5세대 실손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페루 '광대의 날' 퍼레이드



25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연례 '전국 광대의 날' 기념행사에서 화려한 분장을 한 광대들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페루 광대의 날은 1987년 5월 25일 사망한 '가난한 자들의 광대' 토니 페레일을 기념해 제정됐다.

도산안창호함·대전함, 캐나다 에스퀴몰트항 첫 입항



25일(현지 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III, 3000톤급)과 호위함 대전함(FFG, 3100톤급)의 첫 입항 공식 환영식이 열리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